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정에서 학생들이 정담을 나누고 있다.

DGIST, 반도체·센서 연구로 대구·경북 산업 경쟁력 높인다

국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차세대 반도체·센서 연구를 통해 대구경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꿈꾸고 있다.

DGIST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과학기술 리더 양성 및 과학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DGIST는 올해 조직 개편으로 지난 1월 신설된 차세대반도체연구소와 센소리움연구소를 활용해 대구·경북 지역과 협력을 통해 발전할 계획이다.

차세대반도체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대학 나노 인프라 혁신사업'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학 나노 인프라 혁신사업은 대학 나노 인프라 시설과 장비 고도화를 통해 관련 교육·연구·산업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선도 등 국가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DGIST는 차세대반도체융합연구소 주도 아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지원본부와 함께 구성된 'IST-FAB 나노 인프라 사업단'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

사업단은 첨단 나노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와 N-STAR 나노기술 전문가 양성, 기술지원 서비스 고도화 및 전문성 제고, 영남·강원권역 나노기술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나노 인프라 플랫폼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센소리움연구소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 분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센서 분야 소재 및 기술연구를 수행한다. 센서는 현재 사용 중인 모든 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부품이다.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 전송, 활용, 분석하기 위해 센서가 필요하다.

DGIST는 센소리움연구소에 제작 설비를 갖춰 일괄공정이 가능한 최첨단 연구시설(FAB)이 있다. 이를 통해 센서 관련 기술 연구는 물론 센서 분야 전문가도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양 총장은 "반도체와 센서 연구 분야 지역 거점이 돼 많은 연구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이 차세대 기술 기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다양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내일을 향한 위대한 발견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
새로운 세상과 함께 합니다.